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김재희* · 박은규**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의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2010년)~10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28세~34세 청년 956명을 대상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을 6개(①미결미취: 결혼미성취·취업미성취, ②미결불취: 결혼미성취·불안정취업성취, ③미결취업: 결혼미성취·취업성취, ④결혼미취: 결혼성취·취업미성취, ⑤결혼불취: 결혼성취·불안정취업성취, ⑥결혼취업: 결혼성취·취업성취)로 구분하였고,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GEE)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중 '미결미취' 유형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5개 연도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결미취'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결혼취업' 유형에 비하여 결혼을 성취하지 못한 3개 유형(미결미취, 미결불취, 미결취업)의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미취'와 '결혼불취' 유형은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성취여부가 취업성취보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어져 왔던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결혼과 취업이라는 발달과업 성취여부와 청년의 심리적 위기인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청년,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사회적 고립감, 일반화추정방정식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교신저자, silverminev@naver.com

I. 서 론

과거 청년세대는 젊음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으로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88만원 세대’, ‘3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7포세대(연애·결혼·출산·집·인간관계·꿈·희망을 포기한 세대)’, ‘N포세대(7포를 넘어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세대)’, ‘달관세대(높은 청년 실업률로 희망과 의욕이 사라진 세대)’ 등의 용어들로 불리며 위기의 세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들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최근 ‘독존(獨存)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서울경제, 2016.6.5.)는 그동안 노인들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논의되어온 사회적 고립이 더 이상 노인만의 이슈가 아님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의존적인 미성년의 시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일어나는 시기로(김은정, 2015) 결혼, 가족형성, 취업, 직장생활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 내 주요한 구성원으로 발전해간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아가는 시기에 오히려 사회와 단절하고 소외되어가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이 향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사회적 고립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청년¹⁾들은 생애발달단계 가운데 성인초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초기는 아동·청소년기 등 이전 생애단계에서의 발달을 기반으로 중년·노년기로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한 생애전환 시기로(이인정, 최해경, 2001), 통상적으로 20세 이상 35세 전후의 연령시기로 구분된다.²⁾ 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에서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연령과³⁾ 유사한 시기이다. 또한 성인초기 발달과업

1) ‘청년’으로 번역된 영어 youth는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청년은 성인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의 개념적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주경필, 2015).

2) Erikson(1982)은 성인초기를 22세~34세로 구분하였고, Havighurst(1972)는 18세~35세로, Levinson(1978)은 17세~40세로 성인초기를 분류하였다. 국내 학자의 경우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과 이용환(1982)은 19세~25세를 청년후기, 25세~35세를 성인전기로 구분하였고, 이인정과 최해경(2001)은 22세~35세를 청년기로, 장휘숙(2008)은 18세~39세를 성인초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조항에 따라 34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고용 가능 미취업청년) 또는 39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예비청년 또는 청년 창업자)까지로 정의되기도 한다.

으로 여겨지는 결혼과 취업은 최근 청년들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년은 생애발달단계에 있어 성인초기와 동일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성취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다음 생애발달단계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휘숙, 2009). 청년이 성인초기와 동일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을 성취하는 것은 청년들이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비용지불, 주거비마련 등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 지연 등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취업 성취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들어 청년들의 결혼과 취업 성취가 늦어지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남춘호, 2015; 문혜진, 2010;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은 결혼 및 취업의 성취 배열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은 반면, 심리적 요인과 연관시켜 발달과업 성취여부가 청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연구에서 결혼과 취업은 우울, 불안, 정신건강 등의 심리적 요인들과 관련된다고 설명되는데(라채린, 이현경, 2013; 장재윤 외, 2004; LaPierre, 2009), 이는 최근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가 늦어짐에 따라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 공포, 무기력, 체념, 낙심과 수치심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날이 갈수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개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자 결혼·취업을 지연시키는 현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김은정, 2014). 이에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년들의 심리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단절 및 소외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이들의 심리적 위기로서 사회적 고립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과 취업의 성취에 따라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을 비교하고,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

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고립’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가 되는 것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적은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인 외로움(loneliness)의 정서와 관련이 된다(Wenger, Davies, Shahtahmasebi & Scott, 1996). 즉,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관계망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Erikson(1968)은 성인초기에 개인은 타인과 신뢰감·친밀감을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이 단계에서 실패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고 사회적 공허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며 성인초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을 친밀감 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청년에게 있어 친밀한 관계형성이 중요함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이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사회적 존재 또는 특별한 개인

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지지가 없을 경우 고립감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정서적 장애, 죽음, 우울, 자살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hang, Muyan & Hirsch, 2015; Hazler & Denham, 2002).

청년기는 학교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 취업을 통한 독립적인 경제생활 시작, 그리고 직장생활 및 결혼을 통한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이성균, 2009). 그러나 성인으로의 이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 없이 생계형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경제적 배제는 물론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 정신건강의 위기 등에 직면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김영, 황정미, 2013). 특히, 최근 장기화되는 청년취업난은 청년들의 독립성, 자아실현 기회, 소속감 등의 요인들을 박탈시킴으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 심리적 우울, 좌절감 등을 증가시키고 있어(임선영, 김태현, 2005; 정연순, 2014)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이 높아질 수 있다.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하는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은 향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이들의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게 한다. 따라서 자칫 쉽게 사회적 고립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긍정적인 삶의 유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발달과업이란 생애주기의 각 생애단계에서 개인이 성취해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Seiffge-Krenke & Gelhaar, 2008). 발달과업 성취는 개인이 삶을 성공적으로 적응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개인의 행복과 다음 생애단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2010; Seiffge-Krenke & Gelhaar, 2008). 즉, 각 생애단계에 해당하는 발달과업을 성취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의 원활한 생애 전환에 도움이 됨은 물론 긍정적인 심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인초기 발달과업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는데(표 1 참조), 공통적으로 결혼·출산·자녀양육, 취업 및 직업선택 과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결혼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취업은 경제적 독립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청년들이 성취해야 할 핵심적인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비추어볼 수 있다. 즉, 결혼과 취업 성취여부는 청년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초석이 되는 결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1
성인초기의 주요 발달과업

연구자	대상	발달과업	특징/주요과업
Havighurst (1972)	성인 초기 (18~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선택 ▪ 배우자의 생활방법 학습 ▪ 가정형성 ▪ 자녀양육 ▪ 가정관리 ▪ 직업역할 시작 ▪ 시민으로서 의무 완수 ▪ 친밀한 사회집단 형성 	결혼, 자녀 양육, 취업(직업생활), 사회관계 형성
Levinson (1978)	성인 초기 (17~4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과의 관계(결혼, 출산) ▪ 직업에 대한 관심(직업선택) ▪ 가정형성 ▪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 ▪ 사회적 모임 	결혼, 취업(직업선택), 사회관계 형성
Vaillant (1977)	정체감 확립기 (20~3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부터 독립(자율성 획득) ▪ 배우자를 찾음 ▪ 자녀 양육 ▪ 직업에 몰두 ▪ 우정의 발달과 심화 	결혼, 자녀 양육, 취업(직업생활)
김중서 외 (1982)	성인 전기 (25~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 ▪ 배우자와 원만한 인간관계 갖기 ▪ 자녀를 성공적으로 출산하고 잘 기르기 ▪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만족스럽고 보람 있게 수행하기 ▪ 직장이나 단체생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맺기 ▪ 자녀들의 필요를 잘 헤아려 부모로서의 역할 다하기 ▪ 진지하고 풍부한 사회생활 영위하기 	결혼, 자녀 출산/양육, 취업(직장생활), 사회관계 형성

연구자	대상	발달과업	특징/주요과업
장휘숙 (2008)	성인 초기 (18~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선택 ▪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 익히기 ▪ 결혼해서 가정 이루기 ▪ 자녀 양육 ▪ 가정 관리 ▪ 직업생활 시작 ▪ 법률 준수, 불법적 행동 하지 않기 	결혼, 자녀 양육, 취업(직업생활), 법률 준수

주) 박삼근, 조혜선과 윤혜경(2005), 장휘숙(2008), 정옥분(2000)에서 제시된 내용을 표로 재정리함.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장기화된 취업난 등의 사회 현상은 청년들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세대의 경제, 고용, 주거 등에서의 불안정성 증가는(남춘호, 2015) 청년들의 결혼·취업 성취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청년들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가 어려워지고 있음은 이로 인하여 이들에게 심리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3. 결혼, 취업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

결혼은 과거부터 성인됨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었다(안선영, 김희진, 2012). 흔히 결혼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깊고(Williams, Frech & Carlson, 2010), 우울, 스트레스, 행복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등의 심리적 요인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라채린, 이현경, 2013; 이미숙, 2012; LaPierre, 2009). 더군다나 배우자 유무는 청년층의 자존감을 보다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김혜미, 문혜진, 장혜림, 2015) 결혼성취가 청년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결혼은 의례적인 일이나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2014.11.27.)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2%로, 2008년 23.6%에서, 2010년 21.7%, 2012년 20.3%로 꾸준히 감소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혼인을 감소와 미혼율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으며(이상림, 2013), 초혼연령은 2000년과 2013년 사이 남성은 29세에서 32세로, 여성

은 26세에서 30세로 높아진 것으로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15.2.6.). 이처럼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결혼이 지연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는 결혼성취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결혼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의 네트워크와 자녀의 양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과 다르게 비혼 여성들은 이웃, 친구, 가족 등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 및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정, 2015). 또한 혼자 사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작고 상호접촉 할 대상의 수가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rrett, 1999; Brashears, 2011). 즉,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확대에 제한을 주어 심리적 외로움이 증가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20~3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기남(2011)의 연구에서 비혼 여성들이 혼인연령이 되었거나 혼인시기를 놓친 것을 불안해하고 있으며, 육체적·심리적 친밀성에 대한 욕구 충족을 억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더욱이 개인에게 취업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 소속감 등을 갖도록 하고(임선영, 김태현, 2005), 다음 생애단계로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취업과 반대 개념인 실업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실업을 경험한 개인은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정신건강, 그리고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고(장재윤 외, 2004;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McKee-Ryan, Song, Wanberg & Kinicki, 2005),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이성균, 2009). 또한 실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고상백 외, 2004), 개인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배화숙, 2010). 더욱이 장기간의 실업상태는 소득이라는 금전적 혜택의 부재를 포함해 직장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자아존중감, 신체 및 정신 활동 등과 같은 비금전적 혜택의 부재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rtazcoz, Benach, Borrell & Cartès, 2004). 즉, 취업은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청년들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업으로 볼 수 있다.

청년의 취업 및 실업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인 집단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한 집단과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한 집단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쁘고(장재윤 외, 2004), 실업상태 지속은 개인의 우울 및 불안을 유지시키지만 취업은 우울 및 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윤 외, 2006). 미취업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한 이훈구, 김인경과 박윤창(2000)의 연구에서는 구직시도 실패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 나쁘고,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반면, 취업에 성공한 집단은 가장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채린과 이현경(2013)의 연구에서는 취업에서 미취업상태로 변화된 집단과 미취업상태를 유지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인 집단보다 우울감과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청년의 취업여부는 심리적 위기요인인 사회적 고립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6차년도(2010년)~10차년도(2014년) 5개 연도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개인의 결혼 및 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분석자료 1차 시점인 6차년도(2010년)에 2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선정하였다.⁴⁾ 28세는 분석 1차 시점인 2010년을 기준으로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

4)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 및 취업의 성취여부는 개인이 청년 시기의 어느 연령대(20대 초반·중반·후반, 30대 초반 등)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31.8세, 여성 28.9세이고(통계청, 2011.4.19.),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28.3세(한국경영자총협회, 2011.9.15.)인 점을 고려하여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 및 취업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하한연령이다. 그리고 34세는 한국의 청년실업, 만혼 상황 등을 고려한 상한연령이다. 최종 분석대상은 6~10차년도까지 '혼인상태'와 '주된 경제 활동참여상태' 문항에 결측 값이 있는 사례를 제외한 총 956명이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사회적 고립감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안에서 단절 또는 소외되었다는 느낌으로 정의한다. 한편,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내에 사회적 고립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사회적 고립감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의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항목의 문항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단절 또는 소외된 느낌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앞서 선정한 문항들을 Vincenzi와 Grabosky(1987)의 정서적·사회적 고립 척도(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ESLI)와 오현숙(2003)의 사회적 고립감 측정 문항들과 비교하여 10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10개 문항에 대한 각 연도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5개 연도에서 모두 요인부하량이 .50보다 높게 나타난 문항을 최종 사회적 고립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문항은 총 4개로⁵⁾ 각 문항은 1점부터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6차년도 .655, 7차년도 .641, 8차년도 .670, 9차년도 .674, 10차년도 .693으로 나타났다.⁶⁾

연구의 청년은 결혼·취업 성취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으로 한정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5) 최종 구성된 문항은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이다.

6)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신뢰도가 .50이상이면 척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김계수, 2010).

2) 독립변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본 연구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은 결혼과 취업으로 정의하고, 성취유형은 발달과업 성취여부에 따라 표 2와 같이 결혼미성취와 결혼성취, 그리고 취업미성취, 불안정취업성취, 취업성취의 조합으로 분류하였다.⁷⁾

우선, 결혼은 ‘혼인상태’가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인 경우 ‘결혼성취’로, ‘미혼’인 경우 ‘결혼미성취’로 각 연도별로 구분한 후, 5개 연도 모두 ‘결혼미성취’이면 ‘결혼미성취’로, 5개 연도 중 한번이라도 ‘결혼성취’이면 ‘결혼성취’로 보았다. 취업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82)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취업자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취업’ 상태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는 ‘미취업’ 상태로 각 연도별로 구분하였다. 그런 후 5개 연도 모두 ‘미취업’ 상태이면 ‘취업미성취’로, 5개 연도 동안 ‘취업’과 ‘미취업’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불안정취업성취’로, 5개 연도 모두 ‘취업’ 상태이면 ‘취업성취’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미성취·성취 그리고 취업의 미성취·불안정성취·성취의 각 조합을 결합하여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을 최종 6개로 분류하였다.

표 2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분류

구분	취업미성취	불안정취업성취	취업성취
결혼미성취	미결미취	미결불취	미결취업
결혼성취	결혼미취	결혼불취	결혼취업

7) 결혼은 한번 성취를 하고 나면 이혼, 사별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혼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과는 다르게 동태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취업은 성취와 미성취로 단순하게 분류하기 보다는 취업과 미취업의 반복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취, 미성취, 그리고 불안정성취로 구분하였다.

3) 통제변수: 개인 및 심리사회 특성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개인 및 심리사회 특성 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로, 심리사회 특성 변수는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3과 같고, 분석자료 1차 시점인 6차년도(2010년)의 값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통제변수 구분 및 측정

구분	변수	측정
개인 특성	연령	세
	성별	0=남, 1=여
	교육수준	0=고등학교이하, 1=대학교이상
	건강상태	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
심리사회 특성	가구연간소득	가구균등화 경상소득(만원)
	가족관계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사회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3. 분석방법

모든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회적 고립감 측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화추정방정식은 Liang와 Zeger(1986)에 의

해 소개된 종단자료 분석방법으로, 일반화선형모형(GLM)에서 보다 확장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종단자료는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반복 측정되기 때문에 반응변수들 간 상관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관성을 무시할 경우 추정값의 표준오차 과소추정이 발생하게 된다. GEE는 반복 측정으로 인한 반응변수의 상관을 고려한 모형화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노형진 외, 2013),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Ballinger, 2004), 최근 사회과학분야의 종단자료 분석에도 차츰 활용되고 있다. GEE의 주요한 특징 중 한 가지는 반응변수의 상관구조를 가정하는 것으로, 분석자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관구조를 선택하게 된다(강현아, 2013). 대표적인 상관구조 방식은 교환가능(exchangeable), 비구조적(unstructured), 독립적(independent)의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교환가능상관은 모든 반복 측정치 간에 상관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비구조적상관은 모든 반복 측정치 간에 상관계수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그리고 독립적상관은 반복 측정치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분석 결과가 제시된다(허명희, 2007). 한편, 잘못된 상관구조를 선택했다면 GEE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정량과 추정량의 분산이 일관되게 얻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신동윤, 박태성, 1996). 본 연구는 GEE분석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상관구조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PASW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일반적 특성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총 956명 중에서 결혼성취·취업성취인 ‘결혼취업’형이 376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성취·불안정취업성취인 ‘결혼불취’형 225명(23.5%), 결혼미성취·취업성취인 ‘미결취업’형 130명(13.6%), 결혼성취·취업미성취 ‘결혼미취’형 120명(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들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 유형은 ‘미결미취’형과 ‘결혼미취’형이었다. 먼저 ‘미결미취’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이하인 비율이 가장 높고, 건강상태,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사회관계·여가생활 만족도 수준이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큰 특징이다. ‘결혼미취’형의 경우 여성이 100.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한 ‘결혼취업’형은 건강상태를 비롯한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사회관계 만족도 수준이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분석대상 청년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또는 평균(SD))

구분		전체	미결미취	미결불취	미결취업	결혼미취	결혼불취	결혼취업	
		956(100.0)	21(2.2)	84(8.8)	130(13.6)	120(12.6)	225(23.5)	376(39.3)	
개인 특성	연령	31.14(2.00)	31.67(2.27)	30.51(2.01)	30.41(1.90)	31.30(2.00)	31.05(1.95)	31.51(1.93)	
	성별	남	453(47.4)	14(66.7)	62(73.8)	83(63.8)	-	31(13.8)	263(69.9)
		여	503(52.6)	7(33.3)	22(26.2)	47(36.2)	120(100.0)	194(86.2)	113(30.1)
	교육 수준	고등학교이하	303(31.7)	15(71.4)	28(33.3)	33(25.4)	45(37.5)	88(39.1)	94(25.0)
		대학교이상	653(68.3)	6(28.6)	56(66.7)	97(74.6)	75(62.5)	137(60.9)	282(75.0)
	건강상태		4.18(.73)	3.33(1.20)	4.12(.68)	4.28(.59)	4.13(.74)	4.08(.71)	4.29(.72)
심리 사회 특성	가구연간소득	2,777.53 (1,365.03)	1,243.49 (693.25)	2,542.34 (1,587.51)	2,955.76 (1,257.77)	2,579.08 (1,289.31)	2,418.54 (1,094.53)	3,132.29 (1,415.34)	
	가족관계 만족도	4.04(.66)	3.50(1.02)	3.79(.79)	3.84(.62)	4.12(.60)	4.06(.65)	4.15(.62)	
	사회관계 만족도	3.85(.64)	3.29(.91)	3.67(.76)	3.83(.51)	3.68(.71)	3.85(.65)	4.00(.59)	
	여가생활 만족도	3.18(.88)	2.50(1.02)	3.12(.89)	3.35(.88)	3.26(.89)	3.05(.92)	3.21(.83)	

주1) 성별, 교육수준은 빈도(%) 값으로 제시됨.

주2) 연령, 건강상태,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사회관계·여가생활 만족도는 평균(SD) 값으로 제시됨.

2.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5개 연도(2010~2014년)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청년

의 사회적 고립감은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5개 연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미결미취’형의 경우 모든 분석연도에서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사회적 고립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

(단위: 평균(SD))

연도	1차(2010년)	2차(2011년)	3차(2012년)	4차(2013년)	5차(2014년)
미결미취(A)	1.75(.69)	1.77(.59)	1.56(.49)	1.81(.43)	1.94(.64)
미결불취(B)	1.27(.39)	1.24(.37)	1.31(.36)	1.31(.39)	1.33(.43)
미결취업(C)	1.16(.32)	1.17(.33)	1.18(.32)	1.22(.38)	1.20(.39)
결혼미취(D)	1.17(.32)	1.16(.31)	1.18(.35)	1.17(.38)	1.14(.25)
결혼불취(E)	1.15(.30)	1.16(.28)	1.15(.35)	1.11(.21)	1.12(.27)
결혼취업(F)	1.09(.24)	1.07(.21)	1.10(.24)	1.09(.22)	1.07(.20)
전체	1.15(.31)	1.14(.30)	1.16(.32)	1.15(.31)	1.14(.31)
F	16.545***	19.124***	10.787***	23.690***	33.474***
Scheffe	A)B, C, D, F; B)F	A)B, C, D, F; B)F	A)B, C, D, F; B)E, F	A)B, C, D, F; B, C)E, F	A)B, C, D, F; B)D, E ,F; C)F

주) ***: $p < .001$

종합적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사회적 고립감의 변화궤적을 살펴보면 (그림 1 참조), ‘미결미취’형의 경우 3차 시점에 사회적 고립감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5개 연도에서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한 ‘결혼취업’형은 5개 연도에서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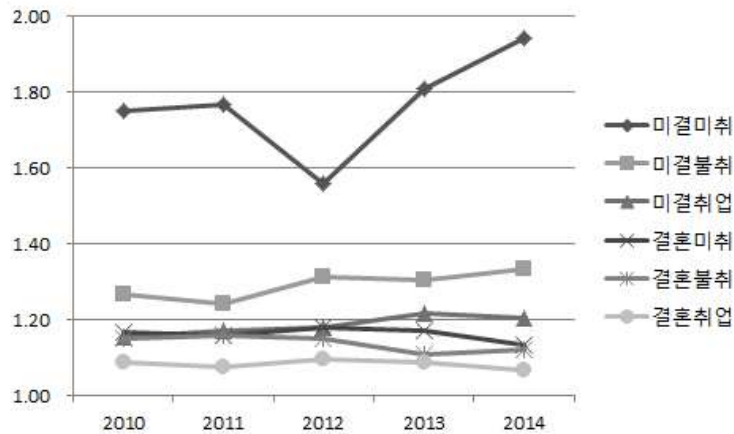


그림 1.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사회적 고립감 변화계적

3.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분석을 3가지 상관구조별로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상관구조 모형에 따라 각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의 계수 값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취유형은 3가지 모형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한 ‘결혼취업’형에 비하여 ‘미결미취’형, ‘미결불취’형, ‘미결취업’형의 사회적 고립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미취’형과 ‘결혼불취’형은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계변수로 투입된 변수들 중에는 교육수준,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가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비구조적상관 모형에서만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교환가능상관		비구조적상관		독립적상관	
		B	Wald	B	Wald	B	Wald
독립 변수	미결미취	.506***	25.254	.511***	29.322	.502***	24.241
	미결불취	.167***	48.242	.161***	46.598	.167***	48.181
	미결취업	.076***	17.470	.076***	16.627	.076***	17.462
	결혼미취	.029	2.391	.032	2.485	.029	2.477
	결혼불취	.011	.709	.008	.291	.011	.719
통제 변수	연령	-.003	.972	-.001	.068	-.003	1.005
	성별(남성)	-.015	1.506	-.018	1.937	.014	1.4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039***	11.794	.041***	11.482	-.039***	11.692
	건강상태	-.012	3.112	-.019*	5.875	-.012	.082
	가구연간소득	-.038***	12.397	-.042***	12.662	-.037***	11.975
	가족관계 만족도	-.023*	6.085	-.033**	10.308	-.024*	6.402
	사회관계 만족도	-.053***	21.435	-.061***	22.756	-.053***	20.858
	여가생활 만족도	-.026***	17.941	-.029***	19.002	-.026***	17.577

주1) 독립변수인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의 기준변수는 ‘결혼취업’형임.

주2) 성별, 교육수준은 더미변수, ()는 해당변수의 기준변수임.

주3)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의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10차년도 5개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을 ‘미결미취(결혼미성취·취업미성취)’, ‘미결불취

(결혼미성취·불안정취업성취), ‘미결취업(결혼미성취·취업성취)’, ‘결혼미취(결혼성취·취업미성취)’, ‘결혼불취(결혼성취·불안정취업성취)’, ‘결혼취업(결혼성취·취업성취)’의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중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하지 않은 ‘미결미취’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5개 연도 모두에서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한 ‘결혼취업’형은 5개 연도 모두에서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과업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감이 높고(장휘숙, 2008, 2009; Seiffge-Krenke & Gelhaar, 2008), 취업 및 배우자 유무가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배화숙, 2010; 이훈구 외, 2000; 장재윤 외, 2004, 2006)는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미결불취’형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결혼취업’형과 ‘결혼불취’형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정한 취업상태보다는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둘째,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결과,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한 ‘결혼취업’형에 비하여 결혼을 성취하지 않은 ‘미결미취’형, ‘미결불취’형, ‘미결취업’형의 사회적 고립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취업’형과 취업성취 정도가 다른 ‘결혼미취’형과 ‘결혼불취’형은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보다는 결혼성취여부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보다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결혼이 우울의 결정요인임을 설명하는 사회원인모델(social causation model), 결혼은 개인의 자원 획득의 차이를 야기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결혼자원모델(marital resource model),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많이 누리게 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추구한다는 연구결과(백예지, 정효지, 신상아, 2015; LaPierre, 2009; Williams et al., 2010) 등을 지지한다. Erikson(1968)이 친밀감 형성을 성인초기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으로 제시한 점을 함께 비추어볼 때, 결혼은 청년층의 친밀감 형성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및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점수 그 자체는 평균 4점 만점에 최소 1.07점과 최대 1.94점 사이의 분포로 크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의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미결미취’형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결미취’형 청년들은 사회적 고립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보여준다. 이에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높아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년기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생애발달단계로, 사회 환경에 적응하려는 개인의 욕구와 욕구충족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친밀감이 형성되거나 심리적 위기인 고립감을 맞이하게 된다(손정민 외, 2015). 오늘날 청년들의 경제적·사회적 독립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결혼 및 취업의 미성취가 청년의 사회생활 확대의 기회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청년들이 보다 유연한 발달과업 성취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결미취’형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하지 못한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끌어준다. 특히 ‘미결미취’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심리사회 특성이 모두 열악한 결과를 비추어볼 때,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이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의 다양한 사회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 및 형성하도록 돕는 관계지지프로그램,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회복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결혼·취업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결미취’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사회에서 30세가 넘도록 결혼 또는 취업을 하지 않으면 왜 아직도 결혼을 못하느냐, 취업을 하지 못하느냐는 등 주위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미결미취’ 집단을 점점 더 사회적 고립 상황으로 몰아넣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결혼 및 취업 환경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이들이 결혼과 취업 성취를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보다 결혼성취여부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혼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다양한 결혼·출산 장려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은 결혼식(기존에 형식적이고 고비용인 결혼문화에서의 허례허식을 줄이고 혼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살리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장려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 결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의 다양한 노력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원활한 결혼성취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내 뿌리 깊은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은 가정에서의 역할 분업을 고착시켜 많은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창순, 2012). 이에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불확실한 결혼보다는 확실한 직장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박기남, 2011). 따라서 청년, 특히 여성의 결혼성취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전반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결혼성취 조건 하에서 미취업, 불안정취업, 취업의 성취유형 순으로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취업유지상태가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임을 예측하게 한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20대 청년의 63.3%가 1년 3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한겨레, 2015.9.10.) 청년들의 이직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청년들이 지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취업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일자리 수 늘리기에 중점을 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취업유지가 될 수 있

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사회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고립감 측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사회적 고립감 문항은 기존의 사회적 고립감 척도 문항과의 비교,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함으로써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문항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회적 고립감 척도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 및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의 연령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예: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등) 연령집단별 사회적 고립감 수준을 비교하는 후속연구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결혼과 취업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결혼·취업 성취여부에 따라 성취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결혼에서의 다양한 변화(예: 유배우자→이혼/별거, 별거→이혼 등)와 취업에서의 다양한 변화(예: 상용직→임시직, 임시직→자영업자, 실업자→일용직 등)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결혼·취업 상태의 변화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종단연구 및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예측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한국복지패널 이외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연구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설명하는 선행요인을 검증하는 탐색적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앞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층 더 발전된 후속연구들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논의되어왔던 사회적 고립감 문제를 청년을 대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여부가 청년들의 심리적 위기로 작용될 수 있음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현아 (2013). 청소년의 누적 위험 요인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9), 175-197.
- 고상백, 손미아, 공정옥, 이철갑, 장세진, 차봉석 (2004).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대한산업의학회지**, 16(1), 103-113.
- 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에서 2016년 6월 11일 인출.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한나라이카데미.
-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김중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 (1982). 한국에서의 평생교육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논총**, 82, 173-193.
- 김혜미, 문혜진, 장혜림 (2015). 성인기 자아존중감 변화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7(1), 83-107.
- 김혜정 (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2), 7-40.
- 남준호 (2015). 생애과정의 탈표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성들의 성인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1), 139-174.
- 노형진, 변재영, 이지현 (2013). SPSS를 활용한 일반선형모형(GLM) 및 일반화 선형 혼합모형(GLMM). 경기: 학현사.
- 라채린, 이현경 (2013). 에코세대의 취업변화와 자살생각. **보건행정학회지**, 23(4), 369-375.
-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349-378.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배화숙 (2010).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정책**, 37(2), 325-344.
- 백예지, 정효지, 신상아 (2015). 30세 이상 한국성인의 결혼상태와 채소섭취와의 연관성 분석: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8(2), 192-198.
- 보건복지부 (2015.2.6.). 5천만이 함께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보도자료). <http://www.mohw.go.kr>에서 2016년 6월 11일 인출.
- 서울경제 (2016.6.5.). 출구없는 취업난 '독존(獨存)청년'이 늘어난다. <http://www.secdaily.com/NewsView/1KXH01Y400>에서 2016년 6월 11일 인출.
- 손정민, 김현수, 이은희 (2015). 에코붐 세대의 심리사회적기능개발과 예측요인: 사회적 스트레스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27-53.
- 신동윤, 박태성 (1996). 반복측정된 이항자료의 GEE 분석에서 가상관행렬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 11, 15-27.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 김희진 (2012).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9(4), 75-97.
- 오현숙 (2003). **노인의 특성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숙 (2012). 노인인구의 결혼관계와 우울증세: 결혼지위와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4), 176-204.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립 (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39-71.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 자료집: 한국 공공사회학의 과제와 전망**, 569-581.
-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87-101.
- 이인정, 최해경 (200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 이창순 (2012). 한국사회 비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과학연구**, 38(3), 49-71.
- 임선영, 김태현 (2005). 청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51-73.
-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144.
-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 장휘숙 (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09-126.
- 장휘숙 (2009).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9-36.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17.
- 정수남, 권영인, 박 건, 은기수 (2012). '청춘'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35-103.
- 정연순 (2014).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본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격월간 고용이슈 3월호**, 7(2), 6-32.
- 정옥분 (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주경필 (2015).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 **청소년복지연구**, 17(1), 189-213.
- 통계청 (2011.4.19.). 2015년 혼인·이혼 통계(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에서 2016년 6월 11일 인출.
- 통계청 (2014.11.27.). 사회조사(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결과(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2322에서 2016년 6월 11일 인출.
- 한겨레 (2015.9.10.). 취업문 뚫어도...청년 63% 15개월만에 이직.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255.html>에서 2016년 7월 21일 인출.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9.15.). 2011년 신입사원 채용동향 및 특징조사 발표(보도자료). 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1503에서 2016년 7월 21일 인출.

- 허명희 (2007). **SPSS Statistics 일반화선형모형과 생존분석**. 서울: (주)데이터솔루션.
- Artazcoz, L., Benach, J., Borrell, C., & Cortès, I. (2004).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among gender, family roles, and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 82-88.
- Ballinger, G. A. (2004). Using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for longitudinal data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2), 127-150.
- Barrett, A. E. (1999).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never married examining the effects of age. *Research on Aging, 21*(1), 46-72.
- Brashears, M. E. (2011). Small networks and high isolation? A reexamination of American discussion networks. *Social Networks, 33*(4), 331-341.
- Chang, E. C., Muyan, M., & Hirsch, J. K. (2015). Loneliness, positive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hen good things happen, even lonely people feel bett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150-155.
- Erikson, E. H. (1968). *Identity and crisis*. London: Faber & Faber.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s: A review*. New York: Norton.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 Hazler, R. J., & Denham, S. A. (2002). Social isolation of youth at risk: Conceptualiz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4), 403-409.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82). *Statistics of labour force,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LaPierre, T. A. (2009). Marital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over time: Age and gender variations. *Family Relations, 58*(4), 404-416.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 Liang, K. Y., & Zeger, S. L. (1986).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Biometrika, 73*(1), 13-22.
- McKee-Ryan, F., Song, Z., Wanberg, C. R., & Kinicki, A. J. (2005). Psychological

- and physical well-being during unemployment: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53-76.
- Seiffge-Krenke, I., & Gelhaar, T. (2008). Does successful attainment of developmental tasks lead to happiness and success in later developmental tasks?: A test of Havighurst's (1948) theses. *Journal of Adolescence*, 31(1), 33-52.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 257-270.
- Wenger, G. C., Davies, R., Shahtahmasebi, S., & Scott, A. (1996).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 age: Review and model refinement. *Ageing and Society*, 6, 333-358.
- Williams, K., Frech, A., & Carlson, D. L. (2010). Marital status and mental health. In T. L. Scheid, & T. N. Brown (eds.),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Social Contexts Theories, and Systems* (pp. 306-3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S

The effects of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on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youth

Kim, Jaehee* · Park, Eungy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 tasks of early adulthood (employment and marriage) on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youth. The cases of 956 youth aged 28~34 from the five waves (2010, 2011, 2012, 2013 and 2014)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youth group were categorized into 6 groups ('unmarried-unemployed', 'unmarried-unstable employed', 'unmarried-employed', 'married-unemployed', 'married-unstable employed', and 'married-employed'), and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GEE) analysis was then perform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unmarried-unemployed' group's level of perceived social isolation was the highest amongst the other groups. Second, the 'unmarried-unemployed', 'unmarried-unstable employed' and 'unmarried-unemployed' types of perceived social isola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arried-employed' type's of perceived social isolation. However, the 'married-unemployed' and 'married-unstable employed' type of groups did not appear to exhibit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rceived social isol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that there should be a greater focus on

* Kyonggi University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ocial isolation in youth and further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employment as a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and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Key Words: youth,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perceived social isolation,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투고일: 2016. 6. 13, 심사일: 2016. 8. 1, 심사완료일: 2016. 8. 12